

이론(간호교육기관)과 실제(임상담당기관)의 중계자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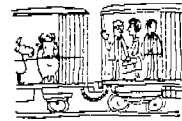
임상 간호원의 입장에서

연세의료원 간호부장 **진 춘 영**

75년도 “여성의 해”를 맞아 협회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 왔는데 어느새 음묘년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들어 창립 52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반세기
의 역사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대내외적 숨은 공
로로 오늘에 이르러 많은 회원과, 나날이 차원
높은 간호사업을 위해 힘쓰며 뚜렷한 목적을 가
지고 인류와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의 여
성단체로서 커다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
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국가안
보 구급간호법」 발대식을 가졌음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상시 응급간호를 감당할 수 있는 필
수적인 사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복잡다단해지는 시대조류는 더 많은 인
적자원과 간호기술과 간호사업을 필요로 하므로
일취월장할 수 있는 「비존」과 역할을 제공해 주
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협회의 끊임 없는
활동과 연구팀의 조성이 절실히 함을 느끼게 되고,



충실한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자는 임상간호원의 입장에서 협회에 바라고
싶은 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실천
하는 도장으로서

첫째, 진보된 간호기술과 간호행동이 간호교
육기관과 임상담당기관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더 큰 발전과 실행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계자
의 입장에 서서 연구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예로 지난번 협회 서울시 지부가 수
출실 간호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던 것 처
럼 분과별 세밀한 연구는 절실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원동력이 될 도서의 확대, 즉 출판사업
의 확대를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셋째로 국내에서라도 임상간호원의 지역별 파
견으로 식견을 높이고 실재를 재평가 할 수 있도
록 조직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째로 임상간호원을 위한 특별 강습의 기회
가 많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협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위원님
들께 감사하며 더 큰 발전을 빕니다.